



'이두나' 수지

드라마 여주들 '사랑'보다 '꿈'

드라마 '신데렐라' 뺨찬 공식 거부

'이두나'·'정신병동에도...' 등 사랑과 일에 열심인 청춘들 갈림길에선 '현실적'인 선택 시청자도 '마음이 원하는 삶' 응원

현한다. 진심이 통한 둘은 결국 연인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이 커플의 이야기는 예상을 빚나가는 결말을 맞는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했던 민들레는 다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꿈을 좇아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대로 떠나면 황여환과 1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여환은 망설이는 민들레에게 "나 버려요"라고 말하며 그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준다.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민들레는 일도 정말 잘하고, 주변에서도 인정받지만, 정작 자신은 간호사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에서 정다운(박보영)과 반대되는 인물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자신을 설레게 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는 여성 캐릭터 대신 꿈을 좇는 여성상도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결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두나!'도 신선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두나!'의 주인공 이두나(수지)는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다가 중압감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선언한 아이돌이다.

대중에게서 자취를 감춘 채 대학가 셰어하우스에서 그토록 꿈꾸던 '일반인'의 삶을 살던 이두나는 평범한 대학원생 원준(양세종)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던 이두나는 원준 곁에서 안정을 되찾고 행복해하지만, 무대에 대한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이담

리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 다른 가수의 공연을 볼 때나, TV에서 과거 자기 모습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몰밀듯이 밀려온다.

컴백 기회를 얻자, 이두나는 어려운 선택을 내린다. "그 남자로부터 정리하라"는 소속사 실장의 말에 결국 쓰던 휴대전화를 건네고, 그대로 원준과 헤어지게 된다.

드라마는 스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이두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이 된 원준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린다.

통상 로맨스 드라마에선 남녀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어질 때 해피 엔딩으로 여겨진다. 민들레와 이두나가 헤어짐을 선택한 건 전통적인 로맨스 극의 해피 엔딩과는 거리가 있지만, 시청자들은 꿈을 좇아 나선 이들을 응원한다.

"마음속 목소리를 따르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한다"(정신병동에도), "드라마치고 현실적인 결말이라 마음에 든다"(이두나!), "사랑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역시 좋은 결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등의 시청 평이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의 봄' 파죽지세

개봉 12일째 관객 400만 돌파 올해 두번째 천만 영화 기대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째에 400만 고지를 넘어섰다.

3일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자정 직후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100만명, 6일째 200만명, 10일째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파죽지세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손익 분기점인 460만명도 곧 넘어설 전망이다.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입소문을 잘 탄다면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탄탄한 이야기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 'MMA 5관왕' 독무대

멜론뮤직어워드...아이브 '올해 앨범'·NCT 드림 '올해 레코드'



'뉴진스'

결그룹 뉴진스가 음악 플랫폼 멜론이 주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MMA2023'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대상 2개를 비롯해 5관왕에 올랐다.

뉴진스는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MMA2023에서 히트곡 '디토'(Ditto)를 앞세워 4개의 대상 가운데 2개인 '올해의 베스트송'과 '올해의 아티스트'를 들어 올렸다. 뉴진스의 '디토'는 올해 멜론 '톱 100' 차트 역대 최장기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멤버 하나는 대상 수상 소감으로 "디토"를 듣고 힐링 받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느낀 에너지를 전달해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이 밖에도 본상에 해당하는 '톱 10', 발매 24시간 내 100만 스트리밍 이상을 달성해 '멜론의 전당'에 오른 앨범에 주는 '밀리언스 톱 10', '베스트 그룹 여자'까지 수상해 5개 부문을 휩쓸었다.

결그룹 아이브는 정규 1집 '아이 해브 아이브'(I've IVE)로 '올해의 앨범'을 받아 2년 연속 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아이브의 안유진은 "대상에 적합한 가수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발전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상인 '올해의 레코드'는 그룹 NCT 드림이 받았다.

NCT 드림의 마크는 "요즘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쉽게 질릴 수도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의 소중함을 지켜가며 앨범을 내보자는 마인드로 내년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즈니'(NCT 팬덤) 많이 기대해 달라"고 깜짝 컴백 계획을 밝혔다.

'올해의 신인'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그룹 라이즈와 엠넷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으로 배출된 그룹 제로베이스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지창욱·신혜선 '웰컴 투 삼달리' 출발 순조

드라마 첫방 5.19% 시청률

지창욱과 신혜선 주연의 새 로맨틱코미디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사진)'가 5%대 시청률로 막을 올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JTBC가 방송한 '웰컴 투 삼달리'는 시청률 5.19%를 기록했다.

첫 방송은 어린 시절부터 제주에서 함께 자라고 한때 연인이었던 주인공 조용필(지창욱)과 조삼달(신혜선)의 일상이 주로 다뤄졌다.

용필은 제주 기상청에 근무하는 실력 있는 예보

관이면서도 서울 본청으로 가라는 권유는 한사코 거부한다.

삼달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 다짐대로 서울의 유명한 사진작가가 됐는데, 남자 친구가 삼달의 어시스트 방은주(조운서)와 외도한 것을 알게 된다.

삼달에게 이 사실을 들킨 은주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고 '삼달에게 지속적인 감질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허위로 진술한다.

이 일이 논란이 되면서 삼달은 계획하던 전시회도 취소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다. 이에



삼달이 언니, 여동생과 함께 제주를 향하고, 제주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재회하면서 1회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여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